



문제 유형이 바뀌었으니 공부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문법도 ‘공부’ 해야 합니다.

다음은 2015학년도 B형 수능 11번 문제입니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웁넌[웁:넌]’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닭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웁기[웁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뱌는[뱌: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정답을 쉽게 찾으셨나요? 참고로 이 문제는 [2015학년도 B형 수능 국어 오답률 1위\(73%\)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음운론’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이죠.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선 **오답률 1위, 무려 73%의 학생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본 학생들은 가장 먼저 자음의 ‘탈락’과 ‘교체’를 구분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이 개념은 모든 문법서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답을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의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 받침 발음의 원칙’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법서에서도 이 부분엔 주목하지 않았습다. 단지 ‘비음화’가 무엇이고, ‘자음군 단순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주입하고 단순 암기하도록 유도할 뿐이었죠.

그러나, 문법의 끝은 다릅니다.

㉠ 자음 동화
: 특정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우리말은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자음이 변동하는 이유는

크게

- 1) 발음의 편의
- 2) 표현의 명확성

이에요. 이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발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동하거나 발음은 불편하지 않는데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변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운의 변동에는 들어가지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자음 동화의 원리를 설명한 후,

㉔ **비음화**[鼻(코-비)音(소리-음)化(변-화)] (안울림 + 울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비음화 ①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밤물 → [밤물], 섭리 → 섭니 → [섭니]

국민 → [궁민], 국물 → [궁물]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마찰음	예사소리		비음화	ㅅ		비음화	ㅎ
		된소리		①	ㅆ		①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ㅉ			
울림 소리	비음		ㄹ			ㅇ		
	유음			ㄴ				

[비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명는] 달는[단는] 밤물[밤물]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비음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둔 후,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실제 원리가 무엇인지, 실제 한글 맞춤법 조항에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세세하게 다 넣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효율’과 ‘실전에 통하는 원리’입니다.

문법 공부는 한 번에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잘 잡힌 개념은 어떠한 실전 문제에도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올해 교재는 더 세세한 설명과 더 많은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법 교과서, 그간의 EBS 교재에서 언급한 개념들, 7차 교육과정 내의 05학년도 수능, 6월·9월 평가원 문제들과 교육청 문제들을 비롯한 작년 2015학년도 수능 A형·B형 문제들까지 10년치 문법 기출의 총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는 어떤 책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의문없이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1. 개념을 이해하세요.

시중에 수많은 기출 문제 해설서가 존재하지만, 2015 A형·B형 수능의 문법 부분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3학년도 수능까지 2문제에 불과하던 문법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5~6(A형은 11번~15번, B형은 11번~16번)문제로 크게 늘었고, 구체적으로는 ‘비문학[언어]’(현재의 ‘독서’)로 출제되던 부분이 문법으로 전환되어 독해만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기본적인 교과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 역시 바로 그런 개념들이 제시된 문제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9월 모의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수능 역시 기본적 개념을 전제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능(2013학년도까지의 수능)과는 달리 6월, 9월, 수능 A형·B형 모두 상위 오답률 5위 문제 안에 문법 문제가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수험생들 역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인 문법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외워야 하는 개념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저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문법 강의도 병행했습니다. 벌써 8~9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특목고 입시에 이 시험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에서 다루는 문법까지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은 점이 있어요.

달달 외워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는 문법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 떨리는 수능 시험장에선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방식은 외울 것을 외우더라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자! 였습니다. 외울 개념들이 있다면, 그 개념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하고, 실제 시험에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사례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문법에 해당하는 정의가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음화’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념서에서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을 만나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죠. 그럼 학생들은 이것 그대로 외우곤 해요.

이 개념이 왜 만들어졌고, 이 설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궁금해 하지도 않고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음화가 나올 때 헷갈리게 됩니다. 파열음이었던가 파찰음이었던가, 마찰음이었나, 어떤 음운이 어떤 음운으로 변하는 것이었지? 등등 외울 당시엔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간단하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비음이 아닌 음운은 안울림 소리이고, 비음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충돌하면 '충돌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안울림이 울림으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문법 개념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거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ㅅ		ㄱ	
		된소리	ㅃ	ㅆ		ㄲ	
		거센소리	ㅍ	ㅈ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예사소리			ㅈ		
울림 소리	비음	예사소리			ㅉ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ㅌ		
울림 소리	유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이 때, 안울림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울림소리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ㅂ'은 'ㅃ'으로, 'ㅅ'은 'ㅆ'으로, 'ㄱ'은 'ㄲ'으로, 'ㅋ'은 '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대응되는 음운을 확인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어때요? 외울 필요도 없는 개념이죠? ^^

이처럼 외워야 할 개념들은 원리를 이해한 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3.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바로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풀다보면, 어느 순간 답만 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와 관련된 부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능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개념이 상당수 반영된 ‘문법’ 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의 기출 문제 분석은 특히, 문제들을 범주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들을 모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되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끝’에선 다른 기출 문제 해설서와 달리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개념의 기출 빈도, 출제 중요도를 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직접 난이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실어 어떤 양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부분은 교재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4.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교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끝낸 후의 생각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다보면,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틀린 문제는 쌓여가고, 점점 답은 외워지고, 맞았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실전을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확인될 때예요. 아직 개념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해보고,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틀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맞춘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각은 종종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야.’라는 생각이 나의 능력을 규정짓고 한정짓곤 하죠. 문법은 확실하게만 정리하면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이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계속 한 두 문제씩 발목을 잡던 문법이 쉽게 풀리는 순간, 안심이 될 거고 안심하게 되면 그 때부터 내 원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거예요.

“문법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야.”

바람을 확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요. 언제나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교재 활용법

1.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이 책을 공부하려면,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앞으로 하나하나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지만, 수능이란 과목은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개념이 필요한 2015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역시 외우기만 해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필기해 두었고, 교재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여 하나하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연필은 내려두고, 눈으로 책을 파악하세요. 외워서 떠나는 시험장에서 제 실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떠올릴 수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 결국 1등급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제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2. 문법 개념 구조도

이 책은 일반적인 목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도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실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이지만, 문법의 경우 개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우더라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법 개념 구조도**’는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①”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문법 2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문법 3	
	2-1-2. 운소	장단, 연접, 억양			문법 4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문법 6
				㉧ 모음 동화	㉨ 전설 모음화	문법 7
			㉩ 두음 법칙			문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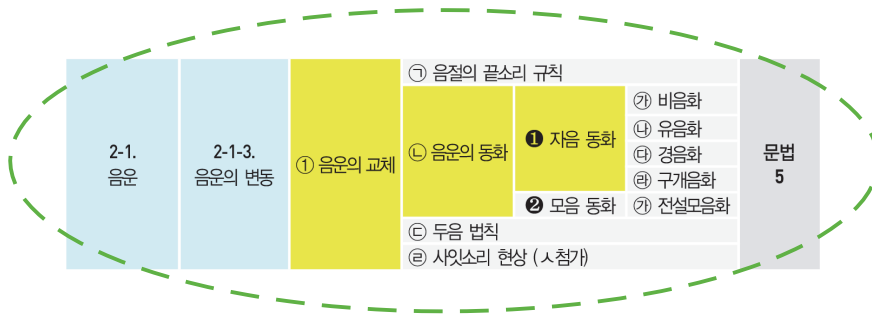
이런 구조도는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등장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②”



단원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며 봐야할 지 떠올리며 개념을 잡아보세요. ^^

“문법개념구조도③”



이건, 각 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로 개념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지를 색(빨간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죠. 즉, 해당 페이지에는 ‘음운’ 중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의 하위 개념인 ‘음운의 동화’의 종류들 중 ‘자음 동화’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며 봐도 되고, 개념을 정리한 후에 표를 봐도 좋아요. ^-^

3. 중요도

㉣ 음운의 동화[同化] 중요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을 나타내는 규칙임에 비하여,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다른 음운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도는 이 그림처럼 중요 개념 옆에 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과 ♣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은 수능에 직접 출제되었던 개념 중 중요 개념을 뜻하고, ★의 개수를 통해 빈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상 중요 내용인 경우 역시 ♣의 개수로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4. 해당 개념 기출 유형

각 개념이 시작하는 맨 처음엔 교육과정과 함께 실제 그 단원에서 기출되
었던 문제 유형들을 모두 담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5. 열공 tip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부분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
이기도 하고요. 문법은 개념이 제일 중요한 데 교재로 독학을 하다보면
궁금한 부분이 넘쳐나게 돼요. 또, 이해하는 방법도 모르고 덮어두고 외우
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개념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필요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담았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꼭 열공 tip을 봐주세요. ^-^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
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
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
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
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
려가며 '바닷가 횡집' (안울림 소리 부
분), '머니와 리' (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
면 좀 칭피할 순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ㄷ'
과 'ㅅ'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
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횡집'의 '횡' 역시 글자 안에 'ㅎ'
과 'ㅅ'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갈
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6. 선생님의 비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 의도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캐리커처도 마찬가지로. ^^



먼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중요개념 중에서도 정말 중
요한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등장하면 꼭 집중해 주세요. ^^



그리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
면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의
미해요.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

7.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의미 없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 후, 해당 개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능은 빨강색, 모의평가는 파랑색, 학력평가는 초록색으로 문제
를 구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어떤 시험의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일부러 문제
에는 난이도나 중요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7차 교육과정의 모든 문법 문제(비문학 '언어'
문제 포함, 2005학년도 6월·9월·수능부터 2013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10월까지의 모든 문법
문제를 실었고,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고 분석해야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기출 문제 분석은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8. 복습하기

이 책을 보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보고 책을 덮어둔 채 시험장으로 간다면 완벽한 점수를 장담할 수 없겠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복습은 틈날 때마다 조금씩만 해도 부담 없이 문법 점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의 끝에는 ‘내가 쓰는 핵심정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일부러 제가 직접 핵심정리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그 부분만 보려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중요도와 핵심 내용들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단원을 다 공부한 후 중요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끝 부분에 작년 ‘2014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여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은 ‘2014 수능 국어 1등급 검토진’의 교재후기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검토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교재를 활용하며 썼던 효율적 방법과 책의 장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책을 펼치기 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며 틈틈이 마음을 잡기 위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끝으로 전체 개념을 다 잡고, 문제도 다 풀었다면 다시 책의 목차를 펴 보세요.

바로, ‘문법 개념 구조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펼쳐봤던 것과 아주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무의미해 보였던 개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뉘고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법을 완벽히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9. 당부의 말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사실 독학으로 내신과 수능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1 때 맨 처음 봤던 시험에선 전교 98등에 반 10등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 성적을 받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성적이 오를 거야. 남들이 말하는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성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학마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꿈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무도 내 꿈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을 울며 방황하며



그렇게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2학년 첫 중간고사, 드디어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 1등, 전교 1등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저 마저도 믿을 수 없었죠. 그 이후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계속 전교 1자릿수 등수를 유지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그 시절을 회고하면 가슴 한 켠이 아릴만큼 답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힘든 것들도 많다, 이런 경험들도 결국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힘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여전히 절 버티게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이 될 만큼, 독학이었기에 혼자서 터득하기에 너무 힘들었고, 오래 걸렸던 그 시간, 그 막막함, 그 고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최대한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행복한 수험 생활을 겪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제 슬픔은 나누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의 슬픔은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 선생님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짐들은 다 짊어질 테니 우리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고,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며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점수에 맞춰 꿈을 꾸는 학생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능 점수는 정직합니다.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내 현재 점수가 얼마든, 내 현재 위치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그에 맞게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낮은 점수일 때 그 점수에 맞춰 꿈을 꾸려다 좌절하던 학생이 성적이 오른 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꿈들을 꾸고 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힘내요. 이 책이, 제가, 여러분들의 꿈의 실현의 순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웅장한 모습을 모두 보여주지 않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빙산은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으로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견고하고, 단단한, 아름다운 그대들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문법 개념 구조도

〈문법 1〉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와 인간		문법 1	16
1-2.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문법 1	16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문법 2	24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문법 3	24		
	2-1-2. 운소	장단, 연결, 억양		문법 4	29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42	
			㉡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문법 6	46
				② 모음 동화	㉠ 전설 모음화	문법 7	53
			㉢ 두음 법칙		문법 8	55	
		㉣ 사잇소리 현상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문법 9	58	
			㉡ 모음 축약		문법 10	58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문법 11	60	
	㉡ 모음 탈락 ('으' 탈락)		문법 12	63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문법 13	64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문법 14	66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문법 15	77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문법 16	77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어간		문법 17	82	
			㉡ 어미		문법 18	82	
			㉢ 어근		문법 19	82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문법 20	82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문법 21	83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 22	84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문법 23	88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① 명사	문법 24	96	
			② 대명사	문법 25	96		
			③ 수사	문법 26	96		

				㉠ 수식언	① 관형사 ② 부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문법 27	104			
				㉢ 관계언	①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문법 28	104			
				㉣ 독립언	① 감탄사		문법 29	106			
				② 가변어	㉣ 용언	① 동사		문법 30	111		
						② 형용사		문법 31	113		
					㉣-1. 용언의 활용	① 선어말 어미			문법 32	113	
							㉡ 종결 어미		문법 33	118	
						② 어말 어미	㉣ 비종결 어미	㉣-1. 연결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 종속적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문법 34	120
								㉣-2. 전성어미	㉡ 명사형 전성 어미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부사형 전성 어미	문법 35	120
										문법 36	120
				2-3. 문장 (통사론)	2-3-1. 문장의 성분	① 주성분	㉠ 주어 ㉡ 목적어 ㉢ 보어 ㉣ 서술어			문법 37	142
						② 부속성분	㉠ 관형어 ㉡ 부사어			문법 38	148
						③ 독립성분	㉠ 독립어			문법 39	148
					2-3-2. 문장의 구조	① 흘문장				문법 40	152
						② 겹문장	㉠ 안은 문장	①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②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③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	④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⑤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문법 41	152
㉡ 이어진 문장	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법 42				155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평서문			문법 43	162			
				㉡ 명령문	① 직접 명령문 ② 간접 명령문						
				㉢ 청유문							
				㉣ 의문문	① 판정 의문문 ② 설명 의문문 ③ 수사 의문문						
				㉣ 감탄문							
			② 높임 표현	㉠ 주체 높임법	① 직접 높임 ② 간접 높임		문법 44	166			
				㉡ 객체 높임법							
				㉢ 상대 높임법	① 격식체	㉡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 (예사높임) 하오체 ㉣ (예사낮춤) 하게체 ㉤ (아주낮춤) 해라체					
				③ 시간 표현	㉠ 시제	① 과거 시제 ② 현재 시제 ③ 미래 시제		문법 45	174		
					㉡ 상	① 진행상 ② 완료상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① 파생적 피동문 ② 통사적 피동문		문법 46	179		
					㉡ 사동 표현	① 파생적 사동문 ② 통사적 사동문		문법 47	179		
				⑤ 부정 표현	㉠ '안' 부정문	① 긴 부정문 ② 짧은 부정문		문법 48	186		
					㉡ '못' 부정문	① 긴 부정문 ② 짧은 부정문					

2-4. 담화 (화용론)	2-4-1. 담화의 개념	① 발화	㉠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문법 49	192
		② 담화의 구성요소	㉠ 화자 / 청자 ㉡ 발화(내용) ㉢ 장면(맥락)		
	2-4-2. 담화의 종류 및 기능	① 정보 제공 담화 ② 호소 담화 ③ 약속 담화 ④ 사교 담화 ⑤ 선언 담화		문법 50	195
	2-4-3. 매체 담화	① 신문 매체 ② 방송 매체 ③ 인터넷 매체		문법 51	196
2-5. 의미 (의미론)	2-5-1. 의미의 종류	① 개념적 의미	㉠ 다의어 ㉡ 동음이의어	문법 52	204
		② 내포적 의미 ③ 사회적 의미 ④ 정서적 의미 ⑤ 반사적 의미 ⑥ 언어적 의미 ⑦ 주제적 의미			
	2-5-2. 의미의 성분 분석			문법 53	211
	2-5-3. 단어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④ 부분-전체 관계		문법 54	213
	2-5-4. 문장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중의적 문장과 모호한 문장 ④ 동일성과 응집성		문법 55	215

[2] 국어와 삶

1. 일상 언어 / 2. 매체 언어 / 3. 사회 언어 / 4. 학술 언어	문법 56	232
---	-------	-----

〈문법 2〉

[1] 국어와 규범

1. 정확한 발음	1-1. 표준 발음과 표준어	① 표준 발음법 ② 표준어	문법 57	238
2. 올바른 단어 사용	2-1. 한글 맞춤법		문법 58	249
	2-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① 외래어 표기법 ② 로마자 표기법	문법 59	254
3. 정확한 문장 표현	3-1. 정확하지 않은 문장의 구분		문법 60	274
	3-2. 자연스러운 문장의 요건	① 문법성 ② 적절성		
4. 효과적인 담화 구성	4-1.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		문법 61	288

[2] 국어와 얼

1. 국어의 변천	1-1. 국어가 걸어온 길	① 국어의 계통	㉠ 국어의 형성 ㉡ 국어사의 시대구분	문법 62	292
	1-2. 국어의 변천	① 음운의 변천	㉠ 자음의 변천 ㉡ 모음의 변천 ㉢ 성조	문법 63	294
		② 표기·문법의 변천	㉠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문법 64	296
		③ 어휘의 변천		문법 65	302
	1-3.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① 한글의 창제	㉠ 훈민정음 제자원리	① 초성 제자원리 ② 중성 제자원리 ③ 종성 제자원리	문법 66
	1-4. 선인들의 국어 생활			문법 67	319
2. 국어의 미래	2-1. 통일 시대의 국어 / 2-2. 세계 속의 국어 / 2-3. 국어와 인접 분야			문법 68	321

부록 : 한글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327

교재 후기

382

빠른 정답

별책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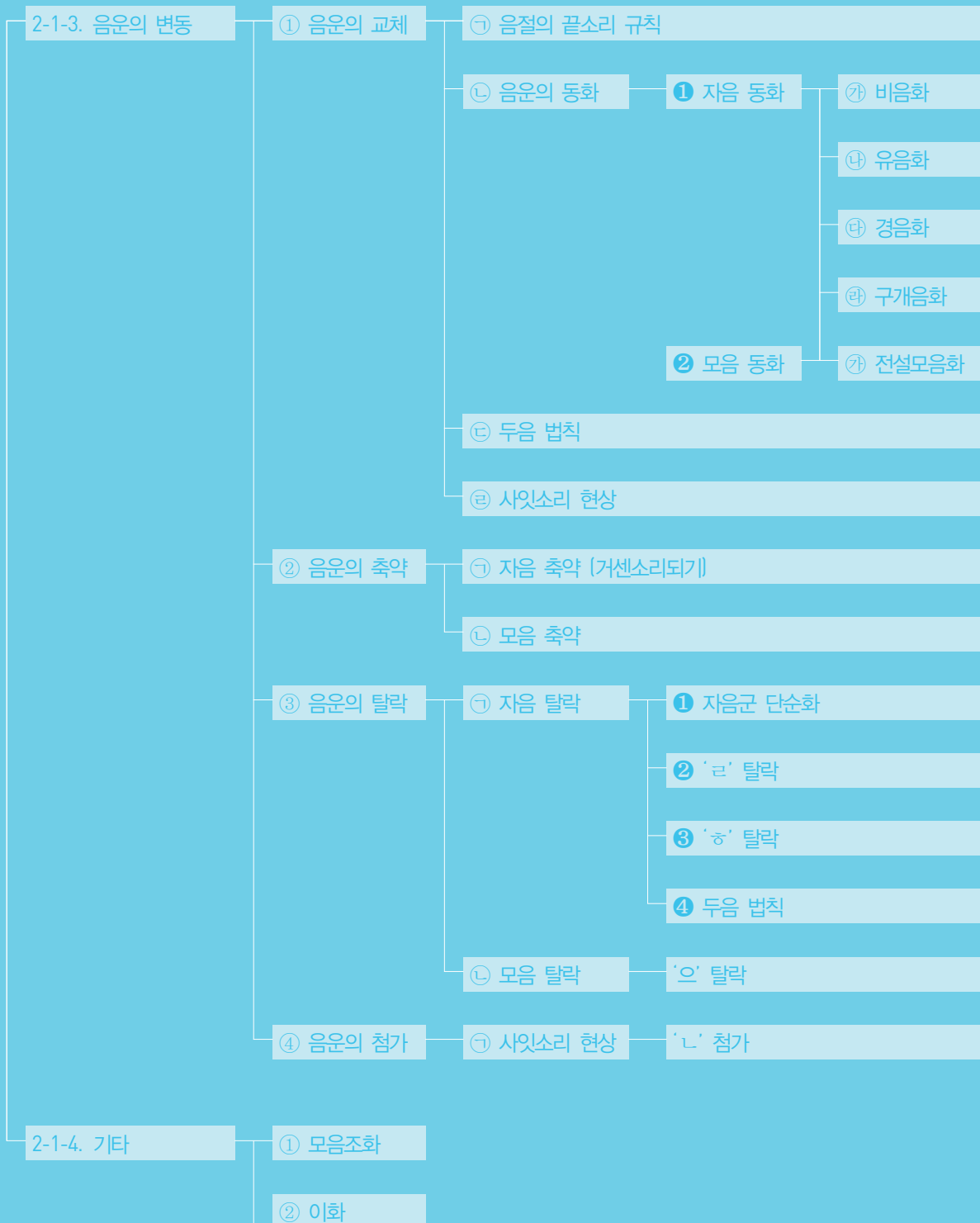
해설

별책

19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 2-1-4. 기타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		㉡ 비음화
				㉡ 모음 동화		㉢ 유음화
			㉢ 두음 법칙	㉣ 경음화		㉤ 구개음화
㉣ 사잇소리 현상 (사첨가)	㉥ 전설모음화					

㉡ 음운의 동화[同化] 중요도 |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을 나타내 주는 규칙임에 비하여,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다른 음운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① 자음 동화

: 특정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 우리말은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자음이 변동하는 이유는

크게

- 1) 발음의 편의
- 2) 표현의 명확성

이에요. 이제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불편한 발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동하거나 발음은 불편하지 않는데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변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음운의 변동에는 들어가지지만, 표준 발음법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며 기억해 주세요.



열공 Tip! - 음운의 동화

동화[同化] 현상은 크게 '교체'에 포함되는 현상이야. 머릿속에 앞에 나온 변동의 핵심 개념 범주를 그려놓고, 거기에 개념들을 채워 나가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어.

국어에서, '화[化]'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 이제 기억해 두자. '~이 되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음 동화'라고 하면 '갈지 않았던 자음'이 '갈게 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는거지.

이렇게 이해를 한 후,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되면 절대로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을거야. ^^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6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 ㉣ 모음 동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ㅅ첨가)		

열공 Tip! - 비음화

‘비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야. 기본적으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만나면 발음하기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편리한 발음을 위해 안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바뀌는데, 표에 나온 것처럼 마찰음과 파찰음은 비음과 대응되지 않잖아. 즉, 안울림 소리 중에는 ‘비음’과 대응되는 것이 ‘파열음’밖에 없으니까 ‘ㄱ, ㄷ, ㅂ’이 변동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 이걸 외우면 꿀치 아프잖아. 그치?

이 때, 각각의 음운들도 아무렇게나 변동하는 게 아니고, 각각 조음 위치에 맞춰 비은 ㅁ으로, ㄷ은 ㄴ으로, ㄱ은 ㅇ으로 발음되는 거야. 정리 끝!

㉧ **비음화**[鼻(코-비)音(소리-음)化(뉘-화)] (안울림 + 울림)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비음화 ①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비음 ‘ㅇ, ㄴ, ㄹ’으로 변하는 현상

예) 밤물 → [밤물], 섭리 → 섭니 → [섬니]

국민 → [궁민], 국물 → [궁물]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ㆁ),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ㅓ, ㅕ, ㅖ)’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달는[단는] 밤물[밤물]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ㄱ		
		된소리	ㅃ	ㅃ		ㄱ		
		거센소리	ㅃ	ㅃ		ㄱ		
	마찰음	예사소리	비음화 ①	비음화 ㅅ ㅆ ①		비음화 ㄱ	비음화 ①	ㅎ
		된소리						
	파찰음	예사소리			ㄷ			
된소리				ㄷ				
거센소리				ㄷ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ㄴ 비음화 ②				

[비음화의 원리]

비음화 ②

- : 유음인 'ㄴ'이 비음인 'ㄴ'으로 변하는 현상
- 예) 공로 → [공노], 박람회 → [방람회] → [방남회]
- 백로 → [뱅로] → [뱅노]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ㄴ'은 [ㄴ]으로 발음한다.

답력[담:넉] 침략[침냐] 강릉[강능]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ㄴ'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녀]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2015학년도 수능 A형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14학년도 수능 A형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말형 → [마텃]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부록 : 한글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한글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ㆁ(앵글)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30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ㄷ(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ㅞ(에) ㅟ(예) ㅠ(에) ㅡ(예) ㅢ(와) ㅣ(왜) ㅤ(외) ㅥ(워) ㅦ(웨) ㅧ(위) ㅨ(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한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음쭈렁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짝둑(~짝둑) 법석 갑자기 몹시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5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최 세 현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안녕하세요 ^^ 15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14년에 이 책으로 열공하면서 서평을 쓰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항상 문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들어봤는데 뭐였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고 좋은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정말 제목 그대로 문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세한거 아닌가 싶어도 세세함 덕분에 헛갈리는 것도 줄고 예문들을 보면서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도를 보며 먼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문법을 다지고 14년도에 본 모의고사 중에는 문법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과의 싸움인 고3동안 따로 단권화 할 필요도 없고 공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뒤져볼 수 있는 책 덕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마스터하여 문법의 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경우는 일단 문법개념도라는 큰 틀을 암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며 헛갈리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문법의 큰 틀을 모두 암기한 후 그 개념도를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본 뒤 제가 제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문들은 암기를 더 쉽게 해주고 개념도는 큰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책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개념도와 예문들이었습니다.

조 용 범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5학번

문법의 끝은 단권화하기에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수 준비 중 학원 수업과 작년 수능 대비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의 끝을 접하게 되었는데, 문법의 끝에서 교과과정과 2013 EBS 교재에 있는 모든 문법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법의 경우 정말 자주 빈출되는 주요 내용이 있고 알아두거나 한번쯤 접해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은 주요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잘 구별할 수 있었고, 부수적 내용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문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법의 끝의 장점은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등 에서도 문법 기출문제는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불안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법의 끝은 비문학 언어 지문과 문제 포함 7차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수능 준비에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습니다

여 혁 기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은 학생들이 문법에 접근하기 가장 좋도록 노력하여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학생들에게 고난인 만큼 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신 느낌이 물씬 난다는 것을 공부할수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계교재나 다른 책과 비교하여 특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문법 구조도로써 학생들이 국어문법의 위계질서를 한눈에 머리에 넣기 좋게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문법 교재들을 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저에게 음운론이 정리되었다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책은 문법의 끝뿐입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적어도 음운론파트만이라도 꼭 보기를 권합니다.

이 지 수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저는 1교시 국어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국어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국어 시험을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모의고사 일수록 뒷 과목 점수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기출문제를 풀 때면 항상 문법 부분에서 약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문법 개념서를 충분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의 끝'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반수였기 때문에 국어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공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법의 끝은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세세하게 인덱스가 붙여져 있다는 것과 짜임새가 구체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약점이 발견된 분야를 목차에서 찾아 내용 공부하는 용도로 이 책을 활용하였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개념들 덕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모르는 곳을 짚어내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첫 부분만 열심히 공부했던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구체화된 목차 구성 덕분에 끝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풀이 후 오개념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올바른 개념을 다시 넣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 동 현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교재로, 시중에 날림으로 제작되는 책들과는 달리 문법의 중심부를 겨냥해 수능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중한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 위주로 '문법의 끝'을 향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노련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분명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하시는 선생님의 정성입니다. 학생들의 초점에 맞춘 간결한 개념,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해설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친근한 학습은 고된 수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재!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권태균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5학번

2015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과 유현주 선생님 강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2016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 이 다른 문법교재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2005학년도부터의 모든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문법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타 문법교재는 물론, 유형별 국어 기출문제집 중 이렇게까지 기출 문제를 많이 수록한 문제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제가 수능을 준비한 2014년 기준으로, 2015년에 어떠한 교재가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개념별로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개념이 중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법의 끝」 의 장점입니다.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Ⅰ」 과 「독서와 문법Ⅱ」 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의 양이 매우 방대한데,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할 양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문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의 끝」 에 개념별로 표시된 중요도를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별 다섯 개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문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 은 국어 문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신이 목표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은샘 |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15학번

먼저 "문법의 끝"을 통해 선생님께 문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검토진으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능이 바뀌게 되면서 문법의 비중이 크게 늘고, 문법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문법은 국어영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법은 감이 아닙니다. 문법은 제대로 한번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바쁜 수험기간중 방대한 문법 파트를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매번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개념과 기출문제가 체계적으로 섞인 이 교재와 강의를 선택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법의 끝"은 개념과 기출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꼭 인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도는 문법 공부에 있어 이정표라고 생각해서도 좋을 만큼 개념을 공부하기 전, 후에 공부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을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하여 평가원이 문법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윤주호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2015학번

문법의 끝을 만나기 전까지 전 문법의 문자도 몰랐었습니다. 개념도 부족했고 문제 푸는 스킬도 부족해서 매번 모의고사를 치거나 문제를 풀때마다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감에 의존하고 확실하게 답을 고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타 다른 책으로 공부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책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오르비를 보다가 새로운 문법책이 나와서 '일단 한번 사서 공부해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기대감 없이 책을 구입했으나 그런데 기대를 비웃듯 책 안에 개념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출 문제 또한 그 파트에 맞춰서 수록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해설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읽기 편하게 되어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문법의 끝을 수능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공부한 결과 수능에서 문법을 다 맞게 되었고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문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허 동 범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015학번

저는 이 교재가 다른 문법 교재보다 좋았던 이유는 설명이 자세하면서도 수능이란 테두리 안에 있고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이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고 문법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지 기억에 더 오래 남았던 것 같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중요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개념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하기도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문법에 모든 개념들이 이 책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부분은 책을 다시 펴서 그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리 스펙 트

언어영역이 국어영역으로 바뀐 지 어언 2016학년도 대수능이면 3년차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문법영역의 비중 증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영역이 있을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했습니다. 언어영역 시절, 단독 문법 문제가 2문제인 시절에는 문법영역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어 영역이 되며 그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더불어 문법 문제는 2014수능에 비해서 2015수능이 더 정교화 되고,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지는 아무도 현 시점에서는 모릅니다만, 대비를 해 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수능은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전공과정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출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문법의 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한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법의 기본 개념과, 교재에 제시된 분석사항을 낱낱이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응용력 또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또한 수능을 여러 번 경험한 필자마저 '현역 시절에 이걸 배웠다면 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남길 정도로 국어 문법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문법의 끝"을 선택하여 꼼꼼하게 책을 학습한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국어영역 중 문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00점을 기원합니다.



2014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4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유 범 정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4학번

우선 작년 『문법의 끝』 교재를 통해 문법 공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검토진으로서 교재를 다시 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있는 어느 문법책보다도 풍부한 설명이 담겨 있어 책을 공부하며 문법 개념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평가원, 교육청 출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문법 이론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죠.

문법 파트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며 또 어렵기도해서 저도 작년에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만났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다른 시중 교재가 어렵게 설명하는 문법 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었고, 애매한 사항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문법 단권화 책으로 사용했고 이외의 문법서는 보지 않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법 서적을 두루 보기보다는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면서 저는 문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시간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시간들을 잘 활용해 6월, 9월, 수능 시험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문법을 확실히 끝내 수능 1등급이 되길 바랍니다. ^^

최 종 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저는 현역시절 만년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쉬우나 어려우나 항상 변함없던 3등급의 점수가 저를 재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풀 때 전에 풀었던 기억에 의지하여 근거 찾은 연습은커녕 답만 적고 해설 읽는 방법처럼 무의미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현역으로 대학 간 친구 중에 저희 학교 특강오신 선생님이었던 유현주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문법의 끝』을 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때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은 문법은 그냥 감이지,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거지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접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풍부한 문법해설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문법의 끝』은 2014수능을 대비하기에 딱 좋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자신이 생기니 뒷부분의 독서, 문학도 자신감 있게 풀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순히 문법지식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능 문법을 대비해야 하는지 척도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또, 올해 교재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이전 교재는 자잘한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루신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에서 묻고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추리고 중요도를 표시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건가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A·B형으로 나누어지면서 다른 문법 기출문제 해설서에서 안 다루는 비문학 언어지문을 다룸으로써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편성한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이전 문법 문제들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법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해설의 적절성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해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기본부터 심화까지 잡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 재 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4학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능에서 문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록 각 부분별로 비중은 다를지라도 문법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공부해볼 수 있게 구성되었으므로 특히 처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고 이미 공부해보았던 학생일지라도 다시 한 번 모든 부분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김 종 우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014학번

일단 제가 좋았던 점은 교재에 수능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자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문법 규정을 함께 실어 놓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능에는 보통 문법규정과 예시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탑재해주신 덕분에 다른 문법 기출문제를 살 필요 없이 복습만 잘 해주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 해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4학번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론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문제들이 빈약하고 기출문제 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관련학습 내용이 빈약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법의 끝』은 기출과 이론, 두 가지가 모두 알차고 충실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관련 단원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가장 먼저, 그 단원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기출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익히고, 그 다음 관련기출문제를 쭉쭉 풀어 보면 그 단원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 경 윤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4학번

시중에 잘 볼 수 없는 '문법 기출문제 모음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교재라서 국어 A형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거의 필수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강좌와 교재를 구입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가독하기에 좋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임 성 원 | 경희대학교 약과학과 2014학번

제가 문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과서나 시중의 교재들에서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은 이러한 가려운 질문들을 속 시원히 긁어 줄 수 있는 교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단순히 외워서가 아닌 이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을 볼 때에는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처음엔 문제들을 풀되 책에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에만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볼 땐 책에다 문제를 풀며 오답인 선지의 오답인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헛갈리는 개념이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신 다음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전날 내가 틀렸던 문제와 표시를 해둔 개념부분만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 성 원 |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2014학번

사실 문·이과 공통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특히 그 중에서도 문법이라는 과목은 수험생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해서 하자니 과연 이게 수능점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안하자니 찝찝하고... 이런 고민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문법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끝』은 정확하게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만을 빠짐없이 정리해놨고 또한 개념들 바로 옆에 수능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들 수 있는 의문들(‘이 개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얼마나?’와 같은 문제)을 해소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개념 공부하실 때 무작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머가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나와 있는 작은 귀퉁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기출문제들이니 꼼꼼하게 수능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풀 것인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만 딱 집어서 구성 되어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설의 사고방식대로 풀었는지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평이든 수능이든 시험장에서 문법 푸실 때는 자신감을 갖고 맘 줄이지 않고 맘 편히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민 호 | 경북_대영고등학교 교사

2013년 한 해 대영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교재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 구성과 수준에 맞는 개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 학생들의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엄 수 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14학번

이 용 주 |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14학번



문법의 끝 [문법 I] 해설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43번 비문해(언어)] - 언어와 인간 심리의 상관성 (본문 p.18)

[40-43 지문해설]

《지문의 구조》

처음	1문단	(일반적 견해)	인간은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
		(개념적용)	이러한 심리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 [예시]
중간	2문단	(구체적 사례)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 - 사은유 [예시]
	3문단	(개념의 확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 [예시]
	4문단	(부연)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예시]
	5문단	(이론의 한계)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님 [예시]
끝	5문단	(결론)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

주제 : 인간의 심리와 언어 표현

40 추론적 사고(주제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는 질문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질문을 찾아가면 된다. 결론에서 '인간의 심리 작용은 언어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다'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구조와 언어와의 관계를 언급한 질문을 찾으면 ②번이 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번은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4문단까지는 언어 표현이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지만, 5문단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③번, ⑤번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고,

④번은 1문단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이지만 이 글의 결론이 의도하는 바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다.

41 추론적 사고(개념의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A]에서 언급하는 '사은유'는 신체의 일부의 이름을 빌려 써서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귀' 역시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입방아'이다. '입방아'는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렇듯저렇듯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을 의미하는 데, 나머지 말들은 사물의 신체 부위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반면 '방아의 입'은 '입방아'의 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번의 '말허리', ③번의 '상다리', ④번의 '병목', ⑤번의 '버선코'는 모두 사물에 신체 부위와 같은 위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므로 '바늘귀'와 같은 사은유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B]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의 상응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 단순한 개념은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표현도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적용된 예로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단수인 '사람'에 '들'이라는 접사를 붙여 복수인 '사람들'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인 '사람'은 단수로, 복잡한 개념인 '사람들'은 단수에 접사를 붙인 복잡한 형태로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번은 동사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형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이전의 개념보다 복잡해진 것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예가 '단수+접사'인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단수+어미'의 형태이므로 오답이 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단수+접사'인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과 같은 사례가 된다.